

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22-116

다문화가정 아동 담당 보육교직원 — 전문교육과정 —

Education for
childcare teaching staff
in charg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들어가며

교재의 목적 및 구성

본 교재는 영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과 보육 방향이 반영되었으며 취약보육(다문화)의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문화성, 인권감수성 및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미래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보육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문화보육에 대한 철학, 이론과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편견이 없는 다문화적인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가 되어보는 실천 사례 및 다문화가정 및 일반부모를 위한 다문화감수성 개발 강의와 활동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취약보육(다문화)지원을 위한 강의자료로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은 다문화보육에 대한 철학, 이론과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장으로 1.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2.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6. 학부모 다문화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 다문화적 교사되기>는 편견이 없는 다문화적 교실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 장으로 1. 다문화보육의 실천 목적, 2. 영유아와 편견, 3.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부 우리 교실이 달라졌어요>는 다문화보육을 통한 교사, 영유아의 변화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문화보육 실천을 구체적으로 독려하는 장으로 1.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2.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3.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본 교재는 모두를 나답게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속 다문화성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삶이자 배움인 놀이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교사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관련 개념 이해 및 인식개선을 통해 다문화적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보육교사
- 교실에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있고 적극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교실에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없지만 다문화보육이 모든 영유아에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가정과 연계한 다문화보육 및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 다문화보육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포함된 정보와 사례를 얻고자 하는 보육교사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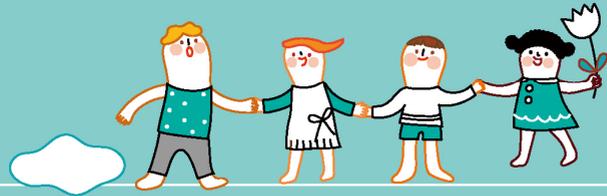
본 교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역량을 강화하며 영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개인으로서는 교재 목차 순서대로 이론, 실천 부분을 차례로 익히는 방법, 목차를 보며 교사 스스로 강화하고자 하는 다문화보육 역량을 그때그때 찾아서 참고하는 방법, 교사 및 영유아의 변화 사례들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은 후 교재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 등 교사 개별 학습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읽은 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모여 목차별로 토론을 하거나 직접 다문화보육을 실천한 사례들을 공유한다면 보다 유용하게 교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NTENTS

1장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	
	1. 영유아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3
	2.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	7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14
	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	18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26
	6. 학부모 다문화 역량강화 자료	32
2장	다문화적 교사되기	
	1. 다문화보육의 실천 목적	39
	2. 영유아와 편견	41
	3.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만들기	45
3장	우리 교실이 달라졌어요	
	1.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69
	2.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71
	3.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교실	73
부록1	다양한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75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

1. 영유아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2.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6. 학부모 다문화 역량강화 자료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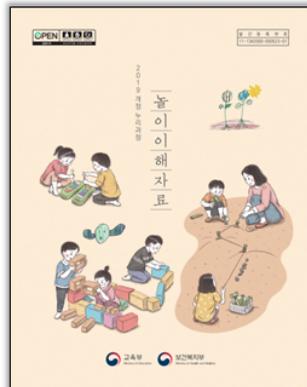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

1. 영유아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2019년에 누리과정이 영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보육의 목적 및 방향을 기본으로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특징

1. 우리나라의 모든 3-5세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자 공통교육 과정으로 법적 성격은 띕니다.
2. 최근의 교육동향인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미래형 교육과정입니다.
3.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운다는 믿음하에 영유아의 자발적 성장과 발달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4.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폐다고지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 3~5세 보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적 과제 중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누리과정의 혁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및 관찰과 기록 등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조, 교사의 현장자율성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이 개정된 후,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과 방향을 반영하여 「4차 표준보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준보육과정이 ‘영유아·놀이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교사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차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특징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2.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우리 문화에 적절한 내용을 일관성있고 연계적으로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3. ‘학습’보다는 ‘놀이’에 중심을 둔 보육과정입니다.
4. 영유아의 놀 권리와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경험과 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 교사의 놀이지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실천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에 숨어있는 가설 및 그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영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차 강조할까요?

아이



흥미나 관심에 따라서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어요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유능한 학습자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자료- 누리과정의 이해

먼저 영유아기를 다시 봅니다. 영유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 중 하나는 교육 대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영유아를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미성숙한 존재이자 교육 대상으로 보거나 연령별 범주화된 보편적 특성을 지닌 유아로 보는 것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즉, 2세아, 3세아, 4세아와 같이 연령으로 범주화 되는 영유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 개별유아의 세계를 존중하는 관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배움의 주체로서의 유능한 유아를 가정합니다.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진 행위주체자이자 지식의 능동적 구성자로서의 영유아를 가정합니다 (임부연 외, 2021, p.108-109).

다음으로, 놀이를 다시 봅니다. 놀이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이는 영유아기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자기성장의 뿌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흔히 자기주도적 학습,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으로 해석을 하지요. 저마다 다른 놀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 힘을 성장시켜 줍니다.



생각해보기

다음의 글을 읽어보세요. 2016년 한국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를 처음으로 개장할 때 일본 놀이운동가이자 모험놀이터 창시자인 아마노 히데야끼 선생님의 기조강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논다는 것은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어야 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른들이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이며 아이의 세계, 영혼을 존중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계를 존중해”를 경험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할 줄 압니다.

나는 나로 살아도 된다는 감각, 그것이 자존감의 회복이며, 놀이를 통해 몸에 새겨지는 감각이 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논다는 것은 그 감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몸의 감각입니다.

- 2016년 일본 놀이운동가 아마노 히데야끼 선생님의 강의 중 일부

- 유능한 학습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rich), 유연하며(resilient), 풍부한(resourceful) 어린이(Murris, 2021, 2016) 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놀이 맥락 속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성장하고 배운다는 교사의 강력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 같은 신념은 이론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관찰을 통해 갖게 되는 실천적 믿음입니다.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경험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강조합니다.
- 어린이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고 이를 지켜보고 지원 하는 교사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교육실천을 보육교사의 교육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

국가 간의 개방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최근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 및 노동이민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격상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닌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이주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 아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그들을 향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영유아 다문화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이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감수성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필수 역량입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정책이나 담론 수준이 아닌 일상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과 영유아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또한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이주현상은 다민족, 다국적, 다문화 국가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은 더 이상 단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UN으로부터 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보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도르프, 레지오, 몬테소리 교육처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미술, 음악이나 과학활동처럼 특정 주제와 목표가 포함된 계획안에 근거한 하나의 일회성 활동일까요? 1부의 2장에서는 다문화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에 따른 개념(concep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보육에 대한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를 해봅니다.

▶ '다문화보육'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개념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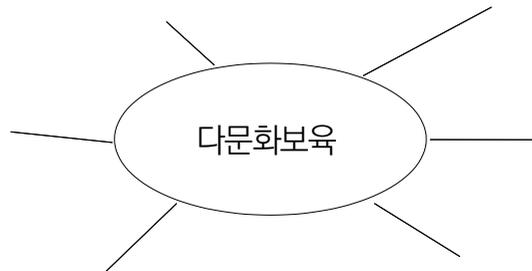
다문화보육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다문화 관련 기존 개념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대한 점검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술해보는 방식인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특히 많이 생각나는 개념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떠오르지 않는 개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이해교육 등 여러 유사한 개념들이 교육실천을 혼란스럽게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보육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공부하기에 앞서 다문화보육에 대한 자각 및 인식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Q 질문해보기

1.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보육'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써본 후 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1) '다문화보육'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2) '다문화보육'이라는 단어로 브레인 스토밍을 해봅시다.



>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

Q 질문해보기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봅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함께 기술해봅니다.



▶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교육의 의미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은 일부 '반편견교육'이나 생활주제 중 하나인 '세계여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다가, 1998년 6차 교육과정에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능력과 자기주도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급증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2007)에서는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활동 자료집을 출간하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다른 나라의 음식과 한국음식 비교하기,'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 등 활동중심의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다문화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이연선, 윤갑정, 견주연, 2012). 한국에서의 영유아다문화교육은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까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영유아다문화교육 이미지



출처:

<http://cafe.naver.com/primehanshin/4080>

<http://www.hancinema.net>

<http://blog.naver.com/sinmakg/8688>

dokdoisours.blogspot.com

• 여행자 교육과정과 문화이해교육

위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은 한동안 독특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개념의 전형성을 형성하고 실행하였는데요. 다른 국적을 가진 어머니에게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배워보는 활동이나, 다문화가정 부모를 초대하여 어린이집에서 그 나라의 음식과 언어를 배워보거나, 교실의 흥미영역에 다문화영역을 새로이 구성하여,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의상 등을 배치해두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경험을 피상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하게 한다하여 마치 여행자가 패키지 여행을 하듯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여행자교육과정(tourist curriculu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표준보육과정에서 생활주제 중 하나인 세계여러나라에 대해 배울 때 여러나라의 음식이나 날씨 등을 살펴보는 형태인 문화이해교육(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이 관광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지닌 여행자교육과정(Tourist curriculum)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19세기 이후 세계성장과 더불어 등장한 세계여행과 관광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행과 관광에 대한 일상적 경험들이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광을 떠올려 보면, 새로운 도시나 명소를 방문하고, 미지의 장소를 여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설고 특별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관광은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일이지만,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의미에서 타자와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풍부한 경험과 앎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교육이 여행의 방식으로 소개가 되면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경험은 피상적이며, 마치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의 느낌처럼 다문화성을 가볍게 경험합니다. 다문화적이라는 말은, 문화와 직접 만나고 익숙해지고, 때로는 참아내고 자신의 문화를 바꾸는 일련의 과정들인 문화화의 과정(acculturation)을 겪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넓어지고 수용가능해지는 단계로의 진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활동으로 다문화보육을 계획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대화가 필요하고 가능한 순간들을 발견하고 집중해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의 영유아다문화교육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서구에서 영유아다문화교육 이미지



- 문화다양성 교육

나라마다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다른 개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나 방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종문제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을까요? 위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서구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문제와 오랜 이민의 역사로 인해 서구의 다문화성에 대한 개념은 가족,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계층, 이중언어, 민족, 장애 등을 다양한 불평등 요인들을 포함하는 교차-문화적이며 반편견적인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중언어교육

언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오전에는 영어로 같이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어나 중국어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home language)로 수업을 하는 교사와 이중언어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주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을 위해 영어능력 테스트를 초기에 실시하여, 별도로 해당 아동에게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 program)을 실시하거나 과도기적 영어교육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of instruction)을 실시하여 학교에 적응을 돕기도 합니다.

한국은 언어의 동질성과 민족적 동질성으로 오랫동안 한민족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느끼며 독특한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이연선, 2013). 한국은 오랫동안 교육을 통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강조해오다가(Mitchell & Shalbury, 1996) 다문화교육이 핵심적인 국가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민자의 자녀를 공교육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 영유아기부터 다문화적 요소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견 감소 및 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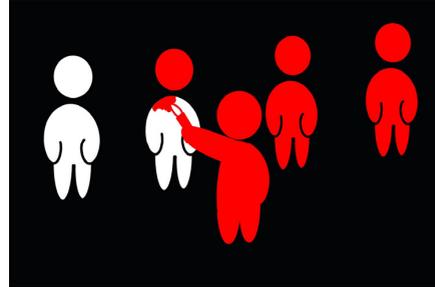
▶ 다문화정책

국가가 취하는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거시적 맥락에서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맥락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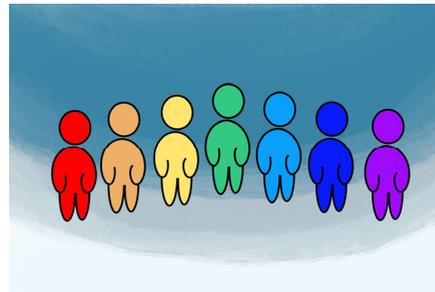


다문화교육에 대한 두 가지 정책적 접근

1. 동화주의(Asimilationist)



2.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이민자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동화주의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한국인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가집니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국어와 자국의 문화를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Q 질문해보기

- 위의 다문화보육에 대한 두 가지의 정책적 접근(동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에 대해 살펴본 후 질문해 봅니다.
1.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다문화보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어디로 향해 있었나요?
 2. 두 가지 접근에 근거하여 다문화보육을 한다면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 실천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아이들의 문화감수성을 키우고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됩니다.

“다양성은 창의성을 향한 강력한 힘이다.”

마이클 아이즈너(전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

“다양성이란 독립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예술이다.”

말콤 포보스(미국경제잡지 포보스 전 발행인)

▶ 문화다양성의 개념

문화다양성, 그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전화하기

선생님에게 문화다양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다양성이란 _____이다.

문화다양성

(1) 문화다양성이란?

국적, 성, 인종, 종교, 지역, 성별, 세대, 장애, 성적 지향, 이데올로기 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이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편견, 차별, 존중과 배려와 같은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시켜 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아가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편성, 운영한다.
- 유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과 상대와의 다른점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편견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아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http://www.i-nuri.go.kr/main/board.do?menu_idx=105&manage_idx=31

2020년 4월 9일에 고시된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개정 방향과 취지를 수용하되 보육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영아보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을 추구합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 기본 권리의 개별 보장을 중시하며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4차 표준보육과정, p.10)

표준보육과정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기 어린이들을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기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언어, 음식문화와 생활습관 등은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데요.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들이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수용되지 못하거나, 배려받지 못하면 어린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로 나타나는 개인의 존엄성이 덜 존중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인간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시켜서 보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UNESCO에서 말하는 문화다양성이란?

국제적인 교육과 문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UNESCO에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성에 대한 UN와 UNESCO의 접근

◆ UNESCO의 교육비전

: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iodiversity
- Climate Change Education
- Disaster Risk Reduction
-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 Poverty Reduction
- Gender Equality
- Health Promotion
- Sustainable Lifestyles
- Peace and Human Security
- Water Sustainable Urbanisation



출처 :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leading-the-international-agenda/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cultural-diversity/>

◆ UN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입장

- 인류가 갖고 있는 풍부한 다양성은... 공동의 힘이 된다.
(Our rich diversity... is our **collective strength**.) (요하네스버그선언, 2002)
- 인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Humanity has inhabited every corner of the world.)
-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다.
(As people lived together, they developed distinctive cultures.)



- 문화다양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기술, 세계관과 인류의 가치를 풍부하게 해주고, 과거의 지혜를 제공하여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The resulting cultural diversity expands choices, nurtures a variety of skills, human values and worldviews and provides wisdom from the past to inform the future.)
- 문화다양성이란 개인, 사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다.
(Cultural diversity is a mainsp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untries.)
- 따라서,.. 교육을 통해, 현재와 다가올 미래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알려야 한다.
(Thus, building an effective global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D needs to address respecting, protecting and maintain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now and in the future.)

출처 :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leading-the-international-agenda/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cultural-diversity/>

Q 질문해보기

1. 국제기구 UNESCO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집에서 놀이중심 보육 과정에 녹여서 활동을 해 볼 수 있을까요?

▶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 (1)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 (2)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3) 개인의 열린 시각을 키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 (4)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다문화감수성을 키워갑니다.

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

2018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2018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의 인간상”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인문학포럼에서 ‘열린 인간’을 꿈꾸며 다문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인간상이란 당위적 명제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자 현상적 명제로서 “사람이 갖추고 있는 전인격적 모습”이란 의미를 가집니다(Kim, 2018).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Q 질문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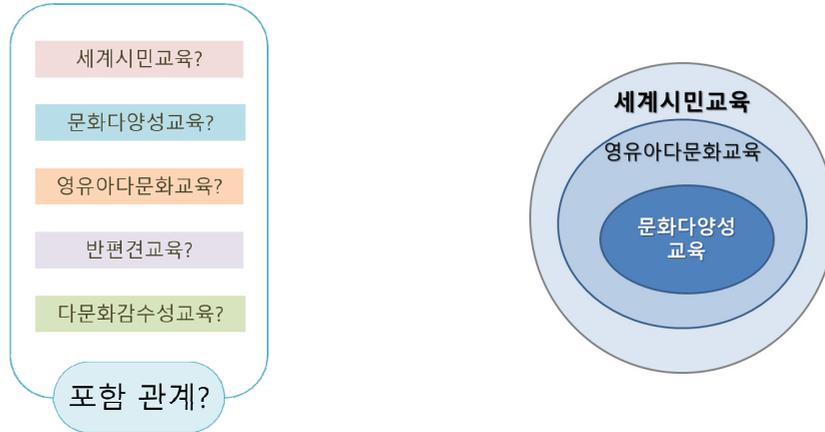
1. 세계화·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족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순수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다문화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21세기 국가의 얼굴은 다원적 국가와 다원적 시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자 지구촌 시대의 인간상은 열린 인간(Homo Non-Clausus)이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로서 우리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다문화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감수성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은 인권감수성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모든 인간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회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문화성과 연결하여 인권을 해석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권리를 이해하면, 전통적인 권리의 개념을 넘어 인간존엄성과 근본적인 자유 개념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포함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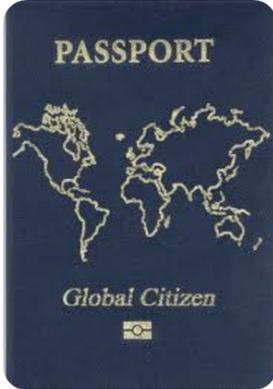


- ▶ 철학과 목적에 따라 교육 방향과 목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영유아교육분야에서는 용어가 혼용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함관계를 나누어보자면,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초점을 맞춘 문화다양성 교육이 가장 작은 하위범주이고, 다음으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세계시민교육(cosmopolitan/global citizenship education)으로 분포가 될 수 있습니다.

▶ 현대 다문화사회와 세계주의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계시민(citizen of the world)을 뜻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와 민족에 소속된 것과 더불어 더 큰 인류의 집단인 세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마주할 때 교사가 세계주의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교실 내의 다문화성과 개별 아동의 특수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세계주의는 최근의 현대철학 담론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태도이자 마인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주의란 세계화 사회를 살아가는 특정 삶의 양식인 동시에 철학, 세계관이자 사고 방식입니다.

철학적 눈을 가지고 영유아 다문화보육을 실천한다면?



1. 철학과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다문화보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적 형태의 다문화보육에서 민주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인식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2. 세계주의(Cosmopolitanism)란 현대철학 담론 속에서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세계주의란 신념, 철학, 세계관, 정체성, 지향성, 기질, 태도,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등과 유사하며 서로 포함관계입니다.

▶ 세계주의란 무엇인가요?

세계주의 *Cosmopolitanism*

검색

• 사전적 의미: '세계의 시민(citizen of the world)'

• Encarta 세계영어사전(1999, p.427),

세계주의적(cosmopolitan, kousmou polites),

① 세계여행을 많이 한: 많은 다른 나라나 문화에 친숙한,

② 편견이 없는: 국가나 민족적 편견이 없는,

③ 지식이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광범위한 문화적 지식을 갖고 있고 세련된.

✓ 세계주의적 마인드 ≠ 물리적 이동 + 문화적 경험

→ 경험을 비판적으로 해석/지각/수용할 수 있는 지적/윤리적/미적 능력

진정한 세계주의자? 다양한 문화적 경험뿐 아니라 문화-반성적 능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의미

- ▶ 세계여행의 기회가 많아서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친숙할수록 세계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광범위한 문화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 종교, 인종,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세계주의적 마인드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자란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자란 내가 새롭게 한 문화적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윤리적 혹은 심미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이나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문화-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세계주의 철학 살펴보기

(1) 타고르의 세계주의

- ▶ 타고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밀받침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 얕은 세계주의와 깊은 세계주의를 구분하여, 의상이나 음식 등 외형적 문화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은 얕은 수준의 세계주의 접근으로 비판하였습니다.
- ▶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세계주의 교육은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 인간성과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으며, 조화로써의 통합(unity as harmony)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다름을 환영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있게 통찰함으로써, 조화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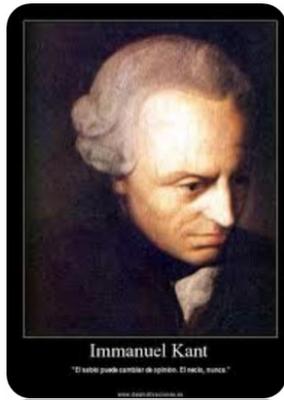
(2) 정치철학자 칸트의 세계주의

- ▶ 칸트는 hospitality를 세계주의적 의무이자 권리(Kant, 1959)로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박애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의무로 보았습니다.
- ▶ hospitality의 사전적 의미는 환영, 환대, 호의, 친절을 의미합니다.
- ▶ 칸트는 타인에 대한 호의와 친절을 세계주의적 의무로 해석하였으며 무조건적이지자 절대적 의무로 당연한 권리로 보았습니다.
- ▶ 다문화 정책이나 교육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덕목으로 도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권감수성의 토대가 되는 도덕성이 부족할 경우 사회 정의, 자유와 평등 등의 인간의 기본 조건이 위면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의식 교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정책이나 교육에서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빠질 경우, “권리에 대한 개념은 마치 텅빈 사고와도 같다.”(Kant, 1959, p.119)

칸트와 타고르와 세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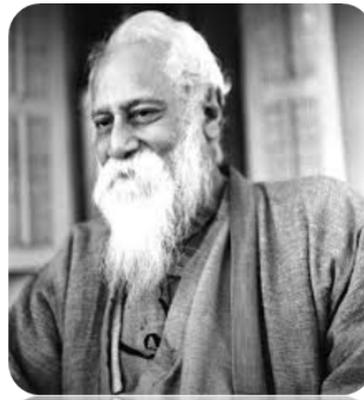
칸트

- ▶ 타인에 대한 친절(hospitality)을 의무이자 권리로 보는 세계주의적 태도를 강조
- ▶ 인권감수성의 토대가 됨



타고르

- ▶ 전통과 인류를 수용하는 조화를 강조하는 세계주의
- ▶ 다문화감수성의 토대가 됨



현대정치철학 속 세계주의

현대철학자 Nussbaum(1996)과 Metha(2000)은 세계화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 모델로 '세계시민(cosmopolitan citizen)'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종, 국가, 언어, 역사, 성 등 특정 집단 속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더 큰 집단인 인류(humanity)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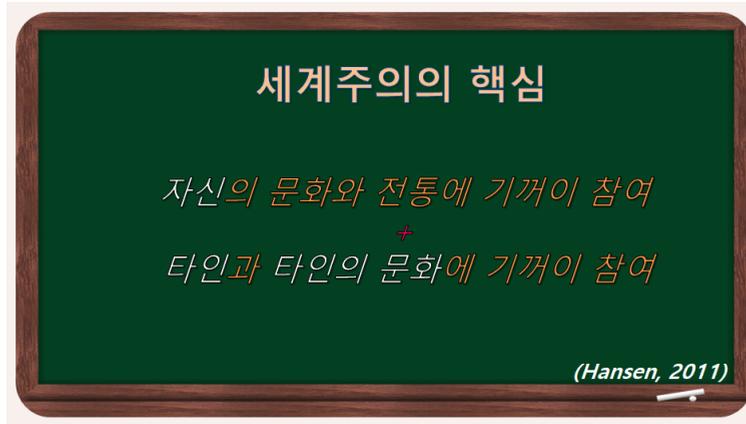
Nussbaum(1996)

삶이 제공하는 많은 가능성들이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어 완성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주체성이 우리가 가져야할 삶의 태도이다. 나(self)라는 직물은 다양한 색상과 색조로 이루어진 여러 조각의 천이 꿰매지고 합쳐지고 서로 섞였을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부해질 수 있음을 마음에 늘 새기는 것이다.

Metha(2000)



▶ 세계주의 철학과 영유아다문화 보육



세계주의 철학은 현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다문화감수성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자신의 문화가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문화보육의 목적은 한국인 영유아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한국어와 문화를 배워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영토와 국가 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넘는 개념으로 모든 인간 존재가 몸에 지니고 있는 개인적이자 공동체적인 특성들입니다. 따라서 누가 타자인지(who is others?)를 구분하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계주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세계주의는 다문화·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a way of life)입니다.

세계주의 철학이 영유아다문화 보육에 시사하는 핵심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전통문화에 대한 관점을 넓힙니다.

* 전통문화에 대한 관점넓히기

다문화교육을 할 때 한국의 전통문화교육은 이주가족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문화라는 개념은 종종 '보존'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집니다. 즉, 문화는 불변하는, 고정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전수와 보존의 수식어가 붙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화형성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며 우리도 현재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란 살아있고(living) 변화하는 것(changing)입니다. 즉, 문화와 유산은 있는 그대로가 가치있는 것으로 보존되어야 함과 동시에 살아있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Philip, p.261).

일반적으로 어린이들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업을 계획할 때, 우리는 한국전통문화를 떠올리며, 우리 조상의 의복인 한복, 언어인 훈민정음과 한국어, 음식인 김치 등과 같은 범위를 국한합니다. Philip(2018)은 한 연구에서 문화지도제작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 지역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역사와 문화를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장려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하고, 유산에 대한 고정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을 넘어, 그 문화가 어떻게 출현되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어 우리 민족의 유산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반에 베트남이나 중국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 이어져 전해내려오는 구비문학이나 전래동화와 함께 들어보거나 태몽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수업 사례

다문화 수업 유형: 이야기 나누기(대집단 활동)

- 이야기 나누기 상황: 대집단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아시아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하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삶인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사는 다른 나라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합니다.
- 활동의 목표: 다문화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이 편견없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과 한국의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함께 탐색해봅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우리도 공기놀이 하는데.” “소꿉놀이 장난감이 우리랑 똑같다.”와 같이 같은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도 같이 놀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직접적인 다문화적 교육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만 다문화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사진자료 등을 이용해 동화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러티브 접근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 스토리텔링 (아시아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하나요?)		
다문화교육 구성요소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 이해, 편견감소	활동시간	30분
		활동연령	만 5세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 아시아의 놀이문화와 한국 놀이문화를 함께 탐색한다. 		
누리과정 5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교수자료	사진집(편해문, 2007,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2009, 소꿈), PPT 자료, 음악		

활동과정	활동내용
이야기 시작하기 5분	<p>◆ PPT를 통해 사진집을 보여주고 관심을 유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자유놀이시간에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 네팔, 인도, 몽골 등 아시아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으셨지요. 마을 마을 찾아 다니면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장난감을 사진으로 담으셨어요. 네팔, 인도, 몽골에서 놀이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하고 이야기를 담았어요. -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 인도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장난감으로 놀이를 할까요?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야기 들려주기 20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인도에서 만난 바이샬리 귀찮으로 눈과 발을 가리는 트래커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바퀴에 난 구멍 모양까지 열심히 빚고 있습니다.</p>  <p>네팔은 물과, 조금만 물이 인도에 사는 다리의 소꿉놀이 입니다. 놀러오실래요?</p>  </div> <div style="width: 45%;">  <p>오래된 큰 나무가 네पाल에 사는 직센, 낭고, 지야 의 놀이장입니다.</p> <p>집으로 돌아갈 때는 물청소를 하고 간답니다. 왜? 나의 소 꿉 집을 소중하니까요.</p>  </div> </div>
아이들과 생각나누기 15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앗, 병뚜껑 딱지다. 몇 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두드렸습니다. 산을 넘어 안전 떨어진 극장 쓰레기통을 뒤 져 병뚜껑을 찾아 냈네요.</p>  <p>어느 나라를 가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 이유는 좋은 공기놀이 좋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인가 봐요. 공기놀이 어릴 거나 꼭 다 갖게 돼요.</p>  </div> <div style="width: 45%;"> <p>소중한 내 병뚜껑 딱지!</p>  <p>우리들은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들도 우리처럼 장난감을 만들어서, 구워서 놀이를 하나요?</p>  </div> </div>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 있는 그대로 봐주기, 다문화성의 실현



나는 김민우입니다.

날마다 다른 생각, 다른 기분, 다른 모습으로 어린이집에 갑니다.

남자아이인 민우는 겨울왕국을 보고 엘사 드레스가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남자아이들의 옷보다 여자아이들이 입는 치마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고르러 간 민우는 오랫동안 봐왔던 엘사 드레스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고르자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남자는 그런 거 입는 거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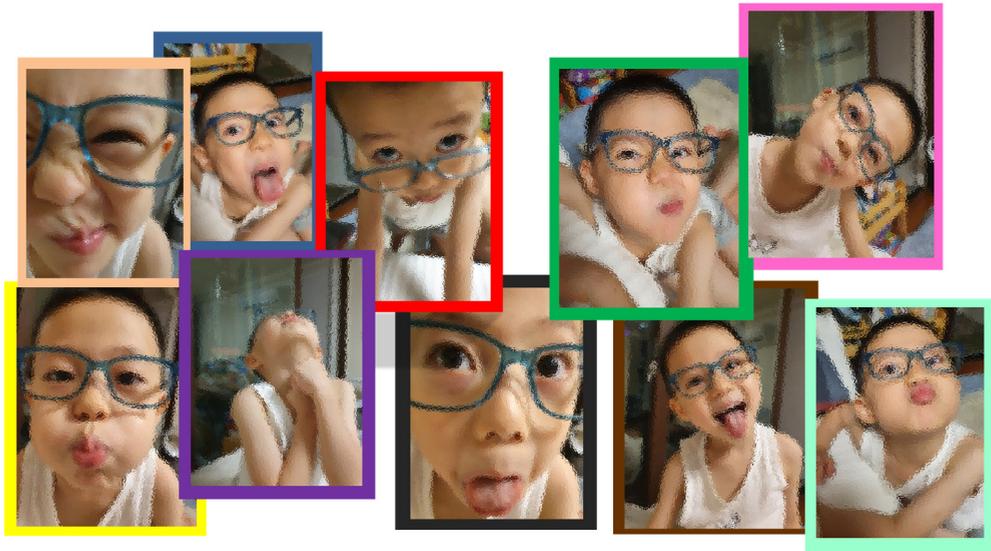
끝까지 고집하며 다음날 준서는 어린이집에 아주 당당하게 드레스를 입고 등원합니다.





▶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김민우입니다. 나는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 순간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우리 엄마의 나라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가 남자 아이라서 나를 “누구”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나는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나는 교실에서 노는 것이 좋지만 비오는 날이면 빗방울이를 나오라고 불러요. 같이 노는 것도 좋지만 레고를 할 때에는 혼자서 집중해야 완성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계속, 계속 변해요.



▶ 다문화성의 실현이란?



개인 고유의 존재 방식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다문화성의 실현입니다.

▶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 속 다문화성과 정체성

아이들은 놀이와 경험을 통해 다름을 즐기고 배우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면서 나와 다른 남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알아갑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이하는 아이는 자연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물과 문제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알아갑니다. 아이는 놀이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등을 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라는 맥락은 아이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처럼 정체성이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다양체인 아이들은 가족 네트워크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이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강력한 문화정체성을 형성(strong ties)합니다. 다음으로 최초의 사회인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선생님, 또래친구들과 교실환경이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자연물을 탐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협상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연결망(weak ties) 속에 놓이게 되고 집단 속에서 문화정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드러냅니다.

필리핀에서 온 지은이와 함께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민수 엄마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베트남 음식과 전통 놀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바깥놀이시간에 민수 엄마가 소개해준 놀이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반의 규칙을 서로 의논하여 정합니다.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문화다양성 편



▶ 어린이집 교실은 다문화적 공간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多)문화적 교실은 문화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어린이집의 교실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가족마다 고유의 소통문화와 일상적인 의례들이 있지요. 이와 같은 가족의 문화성은 민족성, 국가성, 가족 고유의 역사성 등이 얽혀 있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경계를 지어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은 자신만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채로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가족 내에 있을 때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던 가족의 문화성이 어린이집에 오면서 때로는 독특하게 비추어지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사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와 가족구성원을 만나면서 이질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의 언어적 적응과 기관의 문화적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고민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사회학과 교육학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은 새로운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어라는 언어적 과제뿐 아니라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거리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Kim, 2018).

Part 2. 놀면서 즐기는 다름

2019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 문화다양성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多)문화적 교실은

다문화성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24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문화다양성 편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와 가족구성원의 문화적응을 돕는 1차적인 조력자이자, 그들의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환대하며 맞이하는,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고유의 경험과 문화를 좀 더 민감하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우리집만의 문화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옵니다

-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이자 사회가 바로 가정이지요.
- 아이들은 가족과 지내는 일상 속에서 ‘문화(culture)’를 익히고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갑니다.
- 아이들은 저마다 소중한 우리집만의 문화와 일상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옵니다.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개인 특유의 고유성, 가족의 공동체적 문화성, 어린이집 또래 관계에서 형성된 문화와 규칙, 디지털 매체로부터 보고 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다름을 배우고 문화적으로 성장합니다. 다문화교육은 아이들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다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다름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문화다양성 편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모습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또래를 만나며 또 다른 경험을 쌓아가는 다문화적 공간입니다.

놀이 속에서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입니다



몸이 불편한 규석이, 말이 느린 종인아와
짝게임을 하며 함께 놀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나라를 소개해 줄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해 줄게,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상상 여행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만나고, 존중하고 협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연습합니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생각이 다를 때, 그렇지만 친구와 놀이하고 싶을 때,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을 때 등, 놀이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순서를 정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 협상하고, 협력하며 놀이합니다. 다름을 즐기고 배우는 놀이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화를 내거나, 말로 조리있게 이야기하거나,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는 일상과도 같은 매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감정 표현이자 교류의 순간이, 교사에게는 다문화성과 개인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육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경청하며, 자신 또한 다른 아이들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Part 3. 한 걸음 나아가기

2019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 문화다양성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아이들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문화다양성 편

교실에서 이처럼 다문화성을 수용한다는 것은 교실 공간 내에서의 즐거운 문화혁신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어린이들이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교환공간(Pozzon, 2018, p.170)을 형성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순간들이 교사가 다문화성을 교육과정 내에서 수면 위로 올려, 포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문화적 감수성은 특정 교육을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서히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 침투하므로 이와 같은 순간들을 흘려 보내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포용적이고 배려적인 태도가 아이들 내면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6. 학부모 다문화 역량강화 자료

▶ 부모와 함께 발맞추어가는 다문화보육을 위한 자료

출처: 교육부(2020b).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및 놀이연계자료 활용 안내서. 세종: 교육부

- 누리과정이 영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개정된 이후 학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부에서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 문화, 다문화성,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및 놀이연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교육강의, 부모 오리엔테이션, 다문화 공동체 소모임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집에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ppt와 슬라이드 노트로 구성되어 있어 있습니다.



Part 3. 한걸음 나아가기

2019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 문화다양성

가정에서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문화다양성의 시선으로 아이의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아이의 내면의 문화다양성은 풍부해질 것입니다.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문화다양성 편

5. 문화다양성



1) 자료의 구성

- ①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자료 「문화다양성」은 PPT자료로 개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핵심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와 관련 연구물, 유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문화다양성」자료는 1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름, 2부 놀면서 즐기는 다름, 3부 한걸음 나아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

2) 자료의 활용

- ①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자료 「문화다양성」, PPT는 부모교육 강의, 부모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소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문화다양성」, PPT자료는 유아교육기관의 실제 사례를 담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문화다양성 관련 놀이사례, 사진, 동영상, 교사의 기록물 등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한다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때에는 본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각 기관의 유아, 부모, 교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교사와 부모의 참여와 실천을 위하여 본 자료의 내용을 공유하고 학부모 간 인식개선을 위한 소그룹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필요합니다. 다문화 교육이 의미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부모들의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접근한다면 부모들의 적극

38

출처: https://www.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05&manage_idx=31

1부 정리 및 활용을 위한 핵심질문

1부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에서는

1. 영유아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2. 영유아 다문화보육에 대한 접근,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6. 학부모 다문화 역량강화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2019 개정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인 **영유아중심·놀이중심에 대한 개념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삶은 놀이이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 2) 내가 갖고 있는 **다문화보육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다문화보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철학을 공부**하여 다문화적 실천의 지평선을 넓힙니다.
- 3)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보육과정의 다문화적 요소와 접목시켜보면서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 4) 5.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파트에서는 **개인 고유의 존재방식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다문화성의 실현임**,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 속에 다문화성이 녹아있음**,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多)문화적 교실이 문화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다음은 다문화보육 실천에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철학과 세계관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다문화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문화지도 제작은 세계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세계관과 이론적 실천을 지도화하는 것이지요. 즉, 다문화교육을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론적 전환으로



가장 본질적인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실을 운영할 때,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세계주의, 전통주의, 혹은 국수주의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지 혹은 한국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다문화보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반을 조금 더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감수성, 문화다양성, 인권감수성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세계관과 철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할까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이해하기 위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사회와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정립은 다문화성과 세계시민의식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규칙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보육을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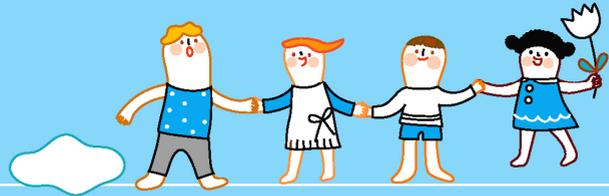
- 다문화성이 교실에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문화적 순간들은 인간의 삶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선생님들은 내 안의 문화혁신(cultural innovation)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었나요?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새로운 경험에 의해 기존의 생각이나 경험이 다르게 변형될 때 사용하지요. 즉, 기존의 생각이나 관점의 문이 열리고 개방되었을 때, 수용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작은 규모라도 미시적인 문화혁신이 일어났었던 경험들이 있었나요? 그 경험들에 대해 떠올려보고,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다문화보육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선생님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다문화성이 교실에서 작동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균형잡힌 결정을 채택하며 아이들과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은 다문화성을 차단하기도 하고, 이를 품을 수도 있어요. 다문화성이 풍부한 교실을 만들어 주세요.





다문화적 교사되기

1. 다문화보육의 실천 목적
2. 영유아와 편견
3.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만들기





2장

다문화적 교사되기

1. 다문화보육의 실천 목적

다문화보육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다문화보육이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영유아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두 번의 이벤트성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¹⁾ 이러한 오해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보육을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닌, 한국문화의 상대적 우월함을 주시킵니다. 이는 소수자 영유아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와 가족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접근방식입니다.



모든 영유아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다문화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보육의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보육의 목적은 영유아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 간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편견을 없애는 교육, 즉, 반편견교육(anti-bias education)은 “영유아가

1) 1장의 '여행자교육과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신과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York, 2016, p. 1)입니다. 나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 중 ‘문화적’ 다름에 집중한다면 이것이 다문화보육인 것이지요. 다문화보육의 입장에서는 반편견교육이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반편견교육의 입장에서는 반편견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 다문화보육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관점이든 다문화보육과 반편견교육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확실한 셈이지요.

〈다문화보육과 반편견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²⁾〉

다문화/반편견교육의 진실	다문화/반편견교육에 대한 오해
모든 영유아가 고정관념/편견에 의한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특정 정치 성향이 반영된 교육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교육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교육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	소수자 영유아만을 위한 것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존중하기 위한 노력	한국의 기존 문화를 부정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일
영유아가 다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름에 의한 차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	다름과 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눈 감게 만드는 일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특정 연령 이상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모든 교육과정에 걸쳐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특정 과목이나 활동을 통해서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다름을 인정하되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함께 배우는 것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교육	1년에 한번 진행되는 행사나 단편적인 수업 내용으로 충분한 교육
교사 스스로도 평생에 걸쳐 배워나가야 하는 것	일회성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 기술

2) 이 표는 York, S. (2016). Roots and Wings: Affirming culture and preventing bias in early childhood. Redleaf Press의 7장(165쪽)을 참고하여 번역 및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다문화보육, 반편견교육, 세계시민교육... 어떤 용어로 지칭하든 모두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임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혹은 영유아의 관심사 위주로 흘러가는 하루 일과 중 언제,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며 왜 영아기부터 다문화보육이 필요한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2. 영유아와 편견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편견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형성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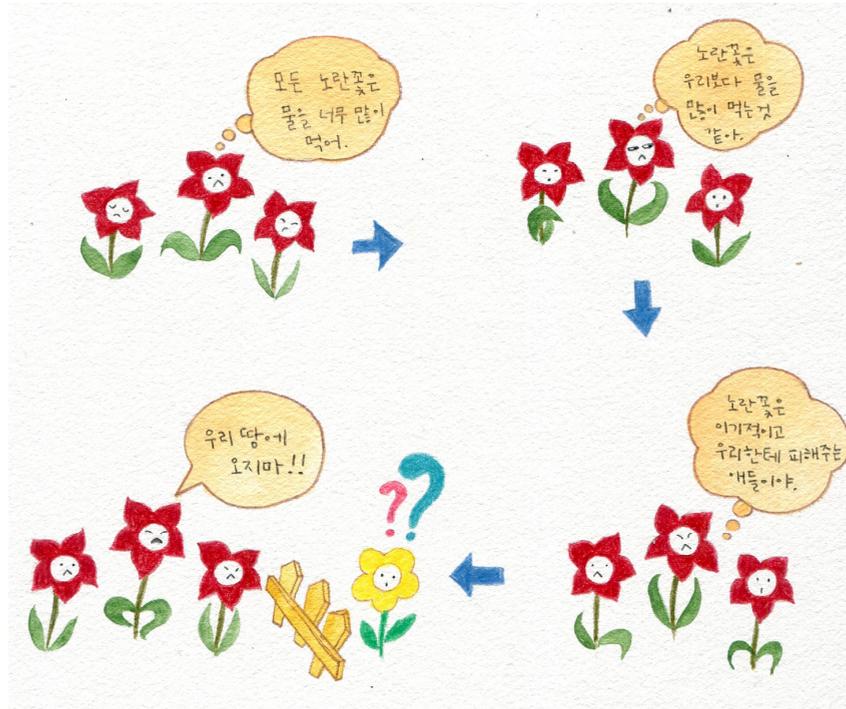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정의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 혹은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하게 또는 특정 범주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서, 진영선, 2008)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박지선, 2014)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견해”(선입견, 2021)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념이나 생각 •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 • 과잉일반화 하는 표현들(예: 모든, 항상, 절대 등)이 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이나 태도 •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 • 편향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의 우월함/열등함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념이나 견해 • 주로 부정적인 내용 • 고정관념, 편견에 의해 형성된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관점;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자는 거만하다. • 모든 여아는 공주를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똑똑하다. • 백인의 교육 방식은 동양인의 것보다 우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이며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다. • 흑인 남성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위협하다.
결과	불공평	불공평	차별

고정관념은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 혹은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하게 또는 특정 범주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서, 진영선, 2008)를 의미합니다. 고정관념은 주로 외부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정된 정보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과잉일반화함으로써 생겨납니다. 고정관념의 핵심은 ‘과잉일반화’에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내용일 때도, 긍정적인 내용일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박지선, 2014)로, 단순히 관념이나 생각을 넘어 이를 반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편향된 견해의 내용 자체는 고정관념처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내재된 태도는 특정 집단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선입견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았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견해(“선입견”, 2021)로, 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 왜곡되어 형성됩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나 생각(고정관념)으로 인해 이 집단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편견)가 형성되고, 이는 직접 경험해 보거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관념이나 견해(선입견)를 갖게 만들어 이들을 차별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유아는 언제부터 선입견을 형성하게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한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살펴봅시다 (York, 2016, pp. 35-37).

0~12개월: 자기인식³⁾ 발달 시기

- 여러 사람들의 얼굴, 손짓/몸짓, 반응을 알아차림
-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주변 어른들과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반응을 모방
- 익숙한 사람들을 인지하고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냄
-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탐구하며 어떤 것이 '나'이고 어떤 것이 '내가 아닌지' 인지하기 시작
-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
-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기 시작

12~24개월: 자기인식 형성 시기

-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기 시작
- 어른들의 기분을 감지하고 이에 예민하게 반응함
-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

3)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이영미, 임민정, 윤재희, 이승하, 2021)

-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기 시작

만 2세: 나/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단어로 스스로를 타인과 구분하는 시기

- 독립성과 자기통제감을 발달시키기 시작
-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을 인지함
- 사람들을 성별로 구분하게 됨
- 여러 색의 이름을 알게 됨
-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만 3~4세: 사람들 사이의 ‘다름’을 알아차리는 시기

- 사람들을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귀속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함
- 자신의 인종, 문화, 언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왜”라고 물어보기 시작
- 아직까지는 성별이나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특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신체적 특성(인종, 성별 등)이 비슷한 또래와 어울리는 경향을 보임
- 고정관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음
- 인종적/문화적/민족적 집단의 특성을 과잉일반화하고 이들에 대해 잘못된 연상 작용을 형성함
- (외면, 웃긴 행동 등을 통해) ‘다름’이 주는 두려움을 숨기려고 함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반대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
- 고정관념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이 시기에 다양한 신체적 특성의 또래를 만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큼



만 5~6세: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또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시기

- 고정관념을 알아차릴 수 있음
- 진짜/거짓, 공정/불공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
- 사고와 행동이 굳어지기 시작
- 상대의 모욕적인 언행과 험담에 적대감을 표현
- 인종적/문화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 시작

이렇듯 영유아는 나와 타인에 대한 차이와 이에 대한 특성을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발달 시킵니다.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고정관념,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영유아 시기부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1~4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1~3단계는 만 0~2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단계는 만 3세 이상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통해 다문화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러 가 볼까요?

Q 질문해보기

1. 현재 나의 교실에 다문화보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만들기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다문화보육이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사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더욱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1.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을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로 만들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모든 영유아(특히, 소수자 영유아)가 내 교실에서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보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 모든 영유아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환영받는 교실
-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교실
-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바로잡는 교실
- 영유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 교실 (York, 2016)

1단계: 교실 환경 구성하기⁴⁾

적용 가능 연령: 영아(0~24개월), 유아(만3~6세)

1) 교실 환경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실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교실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교실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와 영유아의 가족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놀잇감이 한데 어우러져 보관되어 있는 교실에서 영유아는 이 교실은 여러 놀잇감을 특정 규칙에 따라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놀이 공간이나 교구/교재/놀잇감의 자리가 뚜렷하게 분류되어 있는 교실에서는 암묵적인 교실의 규칙을 읽어내게 되지요. 이렇듯, 교실에 어떤 교구, 놀잇감, 도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영유아의 행동, 태도,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York, 2016).

어린이집 입구에서부터 교실, 유희실, 조리실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세요. 여러 공간 벽면, 교실의 환경판에 붙어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영유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나요? 혹시 영유아의 이름표가 성고정관념적인 색상(여아-분홍색, 남아-파란색)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나요?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인종, 민족의 그림·사진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을 나타내는 그림이 언제나 엄마, 아빠, 영유아의 모습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소수자 영유아/가정을 보여주는

4) 부록으로 실린 <다양한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보다 세세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사진이 인종적 다양성만 보여주지는 않는지요?) 교사가 제시하는 시각적 요소들은 은연중에 영유아의 고정관념을 형성·강화하고, 이는 선입견으로 이어집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 현실 속 다양함을 반영하고, 2) 차별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강화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

-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의 사진 전시하기
- 어린이집 곳곳에 부착된 라벨에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의 모국어틀 함께 표기하기
-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별, 장애, 직업, 가족 형태가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그림·사진을 사용하기
- 영유아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그림·사진·물건을 비치하기
- 소수자 영유아가 속한 문화권의 숫자, 글자를 포함하여 교실 꾸미기
- 다양한 기질·성향의 영유아가 교실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가구 배치하기(예: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영유아를 위한 개인 공간과 활동적인 영유아를 위한 개방형 공간을 적절히 섞어 구성하기)
- 다양한 색상, 모양, 질감으로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교실 구성하기

교사가 주의해야 할 것

-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별, 장애, 직업, 가족 형태에 대해 단편적인 그림·사진을 제공하는 것 → 다양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관념을 형성·강화할 수 있음.
- 소수자 영유아가 속한 문화권의 명절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 날에만 그 문화를 전시하고 이야기 하는 것 → 소수자 영유아의 문화가 다수 영유아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라 느끼게 만들며, 오히려 문화적 이질감을 조장할 수 있음
- 교실 벽면, 선반 등을 지나치게 뻥뻥하고 혼잡하게 구성하는 것 → 영유아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

5) 많은 경우, '다문화' 가정을 결혼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 가정으로 한정하여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국제결혼가정(한국인 남성+이주 여성, 한국인 여성+이주 남성)과 다양한 이주민 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영동균청, n.d.)

2) 교재·교구, 놀잇감

분홍색 또는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진 화장대, 원색의 교통수단 놀잇감(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여아는 항상 치마를 입고 있거나 리본핀을 머리에 꽂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교재...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교구, 놀잇감은 놀라울 만큼 고정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놀잇감을 선택할 때는 교사의 예리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교재·교구, 놀잇감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교재·교구, 놀잇감의 '제거'를 위한 질문들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특정 인종이나 외모를 우월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예: 백인 공주 그림; 늘씬한 체형의 여자 인형 등)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특정 인종, 민족, 문화, 성별, 장애, 직업, 가족 형태에 대해 고정관념을 형성·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치파오를 입은 중국 여성⁶⁾ 사진; 경찰복 또는 소방복을 입은 남성 그림 등)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특정 영유아에게 소외감이나 반감이 들게 하지는 않는가?
(예: 엄마, 아빠,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림 등)

교재·교구, 놀잇감의 '추가'를 위한 질문들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영유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 본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별, 장애, 직업, 가족 형태를 평등한 관점에서 정확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개방적인 활동이 가능한 놀잇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아래의 목록⁷⁾을 참고하여 우리 반에 추가되면 좋을 교재, 교구, 놀잇감을 확인해보고,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교실을 만들어 보세요.

6) 중국은 한족 외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중국의 소수민족, 2017년 12월 6일), 각기 다양한 전통 의상, 음식,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7) 본 목록은 York (2016) 책 일부를 참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다양한 색상 및 질감의 물감, 색연필 등
- 다양한 색, 크기 및 형태의 종이
-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 다양한 시대, 문화, 나라의 교통수단
- 다양한 인종, 체형, 장애, 성별, 연령대, 직업, 가족 형태의 그림/사진/인형
- 왜곡이나 과장 없이 사실적인 그림/사진/인형
-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역할놀이 놀잇감
-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집, 건물
- 다양한 나라, 문화의 음식, 식기, 조리 도구 등
- 여러 문화 및 형태의 의류(예: 터번, 머리 장식, 신발 등)
- 다양한 나라의 동식물
- 다양한 나라, 문화의 악기

3) 도서

어린이집 교실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책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영유아는 책 속의 그림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책은 영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문화 아동문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이자 교육자인 루딘 심스 비숍은 책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책은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windows) 역할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든,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이든, 나에게 익숙한 세상이든, 낯선 세상이든지요. 이 창문은 미닫이 유리문(sliding glass doors)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문을 통해 작가가 만들어 둔 세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작가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두었든, 독자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상상력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다 빛이 적절하게 들어오면, 창문은 거울(mirror)이 되기도 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데, 여기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지요.”⁸⁾

- 루딘 심스 비숍(Rudine Sims Bishop)

8) 원문: “Books are sometimes windows, offering views of the worlds that may be real or imagined, familiar or strange. These windows are also sliding glass doors, and readers have only to walk through in imagination to become part of whatever world has been created or recreated by the author. When lighting conditions are just right, however, a window can also be a mirror. Literature transforms human experience and reflects it back to us, and in that reflection we can see our own lives and experiences as part of a larger human experience.”

이렇듯 책은 영유아가 이미 경험한, 또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즉, 영유아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여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느끼고, 차별을 이해하며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지요(Ramsey, 2012, as cited in 백인경, 김낙홍, 2017).

영유아가 어떤 책을 접하느냐에 따라 영유아가 이해하는 세상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책을 고르는 교사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책을 읽어주고 싶다면 고른 그림책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묘사되고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속상해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영유아의 이야기는 아니었나요? 소수자 영유아 및 가족의 삶을 일방적이고 단편적으로 그려내는 책은 영유아로 하여금 편협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 다문화 보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반대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문화보육을 위한 책은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실에는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책 속의 그림, 사진,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다음 질문들을 해봅시다⁹⁾.

- 교실에 있는 책들이 우리 반 모든 영유아와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 영유아에게 읽어주는 책들이 우리 반 모든 영유아의 가족, 인종, 문화, 언어적 다양성을 보여주는가?
- 책의 내용과 삽화가 사실적이고 정확한가? 특정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 책의 내용과 삽화가 특정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를 단편적으로 묘사하여 과잉일반화 하지는 않는가?

동시에 책 내용이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 영유아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책인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아무리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일지라도 영유아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유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에 소수자 영유아가 있다면, 이 영유아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주세요.

9) 본 질문은 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의 책 내용 일부를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반에 소수자 영유아가 없다면, 영유아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인종, 언어, 민족, 문화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을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 민족, 문화, 언어, 가족 형태를 모두 반영하는 단 하나의 책은 없습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통해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영유아와 올바르게 대화하기

적용 가능 연령: 영아(0~24개월), 유아(만3~6세)

이제 막 웅얼이를 시작한 영아부터 자신의 의사를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유아까지, 영유아는 세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세상이 보내는 다양한 메시지(무엇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말/행동인지; 어떤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성별, 직업, 외모 등이 더 선호되는지 등)를 배우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대개 이 메시지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므로 어른이 개입하여 영유아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그렇다면,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에서 영유아와 교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1) 침묵을 깨고 대화의 장 열기

교사는 때때로 영유아의 곤란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는 사이 영유아는 자리를 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침묵은 말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유아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다문화보육과 반편견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 Derman-Sparks와 그의 동료들은(2021) 침묵이 의미하는 바와 이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침묵의 부정적 역할¹⁰⁾

- 어른의 침묵은 영유아로 하여금 영유아가 궁금해하거나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적절히 질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
- 어른의 침묵은 영유아로 하여금 영유아의 제한적인 사고로 세상을 읽고, 이해하게 만든다.
- 어른의 침묵은 영유아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어른의 침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야 할지 또래 영유아와 대중매체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확하며 고정관념에 의한 편협한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영유아가 곤란한 질문을 던진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의 기회입니다. “선생님, ○○○는 왜 말을 못해요?”는 영유아의 질문에 소수자 영유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아가 소수자 영유아의 언어로 된 책을 소개해주고, 세상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처럼 교육의 기회로 확장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장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솔직히 대답해주세요(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우리가 꼭 같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었구나. 근데 선생님이 어떤 말을 써서 설명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거 같아. 이따 낮잠 시간 후에 반 친구들과 다같이 다시 이야기 해보자.”

“선생님이 어릴 때는 그런 중요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선생님이 잘 생각해보고 오늘 ○○가 집에 가기 전에 꼭 대답해줄게.”

영유아의 말이나 질문이 편견과 선입견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영유아의 말과 질문의 속뜻을 교사 입장에서 판단하기 전에 영유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줄 수 있겠니?”

10) 영문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영유아의 대답을 들은 후,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로 대답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영유아가 다양성을 즐기고 존중할 수 있게 대화를 확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선생님, ○○의 피부가 까매요.”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 피부색이 다르단다. 그 중에서도 1년 내내 따뜻하고 더운 나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피부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 까맣지. 사람들이 모두 다른 피부색을 가진 게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니?”

이런 대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교실에서 모든 영유아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간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영유아로 자랄 것입니다.

Q 질문해보기

1. 최근 영유아가 했던 곤란한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2) 평등적 언어 쓰기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무수히 차별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금발의 가발을 쓰고 긴 치마를 입고 등원한 아이에게, “오늘 공주님 같구나!”¹¹⁾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인종적 소수자 영유아에게 “너 한국어 잘하는구나!”¹²⁾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언어는 우리 사회가 무의식중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혼혈인,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을 ‘다르다’고 구분하고 나아가 ‘열등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김지혜, 2017). 좋은 의도로 던지는 말도 알게 모르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평등한 언어를 생활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공주는 (금발의) 백인 여성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2) 한국인은 동아시아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동화주의적인 발상이 결합된 발언입니다.

〈차별적 언어와 평등한 언어〉

차별적 언어 표현	평등적 언어 표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해보렴”	많은 경우, 우리는 고정관념적인 가족 구성만을 생각하며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양육자와 같이 다양한 가족구성원과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주로 인종적 소수자에게) “매운 거 잘 먹는구나” “한국말 잘 하는구나” “완전 한국사람 다 됐네”	이런 표현은 대중매체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칭찬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동아시아인의 외형을 가진 사람만이 한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이방인’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며 한국 문화에 잘 동화된 경우에만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런 표현은 삼가주세요.
“살색을 써서 색칠해볼까?”	오랫동안 크레파스의 살구색은 ‘살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피부색만이 ‘살색’이라는 지극히 차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살구색’으로 정정되었지만 여전히 ‘살색 스타킹’ 또는 ‘스킨톤/스킨 컬러’과 같은 표현들이 동일한 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과 가까운 표현 (연갈색, 옅은 황갈색, 살구색 등)으로 바꿔서 사용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예쁘게 앉아 있네”	어린이집에서는 ‘예쁘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편견적인 표현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있구나”)
“경찰 아저씨, 간호사 언니”	혹시 무의식중에 특정 직업과 성별을 짚어 이야기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동안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성고정관념적인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를 깨뜨리는 표현, 그림, 사진을 제공해주세요.



차별적 언어 표현	평등적 언어 표현
“우리 친구는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고 있어요”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할 때 ‘정상’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은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입니다. 정상의 반대말은 ‘비정상/정상이 아님’으로 비하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김지혜, 2017). 대신 ‘일반적인/평균적인’과 같은 단어를 써 보는 건 어떨까요?

3단계: 양육자와 소통하기

적용 가능 연령: 영아(0~24개월), 유아(만3~6세)

1) 소수자 영유아의 양육자와 소통하기

소수자 영유아 가족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종, 언어, 민족, 문화가 다르다고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영유아와 가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가족이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현재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새 학기 시작 전 영유아와 영유아의 가족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설문지 역시 영유아와 가족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가족과 직접 만나 영유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교사와 가족 간에 신뢰와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가정의 양육자일 경우 교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Ramsey, 2004).

영유아 가족과 친밀해지는 방법

- 소수자 영유아 가족의 언어나 문화 알아보기

한 명의 교사가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모든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국어가 다른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소수자 가족의 인사말이나 문화에 대해 간단히 익혀 둔다면, 소수자 가족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영유아가 집에서 자주 읽는 책 가져오기

영유아와 가족이 자주 읽는 책은 영유아와 가족이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 하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즐기는지 알려줍니다. 다양한 그림과 언어의 책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다름’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 영유아에게 소중한 물건 가져오기

영유아에게 소중한 물건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영유아 및 가족의 문화와 특징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고, 다양함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다문화보육의 실천이 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 등하원 시 간단한 대화, 전화, 문자, 앱 등을 통한 잦은 소통

양육자마다 선호하는 소통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의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교사와 소통을 원하지 않는 양육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양육자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어떤 것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때로는 등하원 시 짧은 대화를 통해, 하원 후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앱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잦은 소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 양육자 상담

학기 중 이뤄지는 양육자와의 상담은 영유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학기 중 1회에 그치는 양육자 상담은 언어, 문화적 소수자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자주 상담을 가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와 모국어가 달라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번역 앱(파파고, 구글 번역 앱 등)을 쓰거나 양육자의 모국어를 쓸 수 있는 지역 내 이중언어 봉사자/강사 등을 섭외해 주세요. 언어적 차이를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행동들은 소수자 영유아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 가정 방문

한국에서는 가정 방문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기 시작 전 모든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영유아와 가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영유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무엇인지, 영유아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원하는 다른 장소(근처 공원 등)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 방문의 목적은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한 것인만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 주류집단 영유아의 양육자와 소통하기

2019년,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선진국 출신이나 백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관용적인 인식을 가지는 반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과 편견을 가지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김진희, 2019). 이는 어린이집의 주류집단 양육자 역시 소수자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특정 인종 및 민족의 소수자 가족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영유아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양육자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양육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어떤 계기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만약, 이런 과정 없이 선불리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양육자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다문화보육과 반편견교육이 모든 영유아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특히, 다문화보육이 특정 인종, 언어, 민족, 문화권의 영유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나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내가 가진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태도를 지니게 하려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원활한 대화를 위해 수차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양육자에게는 어린이집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해도 괜찮습니다(예: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편견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교사가 등하원시 소수자 영유아의 양육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류집단 양육자 역시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Q 질문해보기

1. 그동안 영유아 가족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나요?
2. 앞으로 어떤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4단계: 수업활동 구상하기

적용 가능 연령: 유아(만3~6세)

1) 놀이중심 보육과정과 다문화보육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은 1) 모든 영유아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환영받으며; 2) 영유아가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3)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바로 잡으며; 4) 영유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 교실(York, 2016)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놀이 중심으로 하루가 흘러가는 어린이집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수업활동을 구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놀이를 배움의 수단과 과정으로 보고, 놀이를 주도하는 영유아의 자율성과 지식적 역량을 존중해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놀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시의적절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흥미와 경험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움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데에서 보다 세심하고 유연한 교사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놀이를 주도하는 것은 영유아지만, 이 놀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고정관념적인 놀잇감으로 구성이 된 교실에서 영유아는 역할놀이를 통해 고정관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면, 블록과 같이 비구조화된 놀잇감(개방형 놀잇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실에서는 보다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놀이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놀이 과정에서 영유아간에 차별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를 묵인할 것인지, 수업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역시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렇듯 교실에 어떤 놀잇감을 준비해둘지, 놀이 속 대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강화하고 제지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이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의 다문화보육을 결정합니다(김혜영, 이수진, 2021).



2) 영유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문화 개념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보육 수업을 계획할 때는 영유아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개념 위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주제는 영유아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개념(Multicultural concepts young children can understand; York, 2016, pp. 231-232)¹³⁾”을 참고하여 놀이 위주의 수업활동을 구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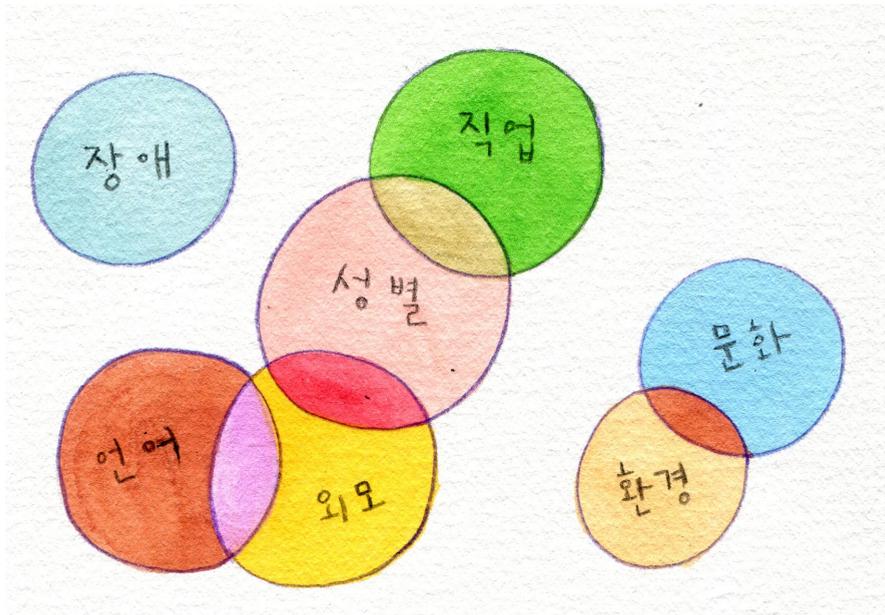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개념

- 사람의 몸은 피부로 덮여 있고, 모든 피부는 고유의 색이 있다.
- 사람들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 모든 사람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다.
- 사람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13) 주로 직역이나, 일부 내용은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 번역 되었습니다.

-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성별, 피부색 등)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키, 머리 모양 등) 중 변하는 것이 있다.
-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나는 나만의 문화가 있다.
- 가족과 나는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 여러 가족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히 대한다.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 우리는 함께 노력한다.
-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협력한다.
- 어떤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일은 흉내만 내는 일이다.
- 공정한 일도 있고, 공정하지 않은 일도 있다.
-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3) 다양성 탐구하기

‘다문화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차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보다 넓은 범주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과 삶의 모습을 배우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는 다문화보육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백인경, 2017; 차금안, 2012). 이때 많은 경우, 문화가 가지는 일차원적이고 표면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음식, 음악, 명절/축제 등에 대해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의 행동, 가치관, 태도, 관습을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매순간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겉문화와 속문화¹⁴⁾〉

겉문화(surface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 전통의상 • 유물 • 음식
속문화(deep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직업(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 성역할 • 가치관 • 역사적인 사건 • 친인척과의 관계 • 가정 내 영유아의 역할 • 교육관 • 언어 • 건강관리법 •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 종교 • 여가생활 • 이사 • 속해 있는 사회경제적/지리적 환경

14) 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의 77쪽의 그림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넓은 범주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나면, 영유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속문화에서 알 수 있듯, 문화는 동일 인종, 언어, 민족 내에서도 다양성을 띠 수 있으며 주로 가족간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모두가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배움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한 영유아는 1) 자신과 가족의 문화정체성, 언어, 삶의 방식, 전통 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2)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서슴없이 공유할 수 있고, 3) 자아존중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4) 나와 다른 문화를 맞닥뜨려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외모

영유아는 일찌감치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기본 개념과 선호도를 형성하게 됩니다(Katz, 1981; Porter, 1971). 즉, 피부색, 얼굴 생김새, 신체 구조 등과 같은 시각적 특징에 기반하여 나와 '같은' 혹은 '다른' 집단을 구분하게 되고(Stangor & Lange, 1994),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편애하는 성향을, 그 외 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을 형성합니다(Billing & Tajfel, 1972). 이렇듯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누군가에게는 소속감을,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한국의 인종차별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은 인종에 의한 차별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가의 국민을 차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설동훈, 1999). 즉, 같은 인종이어도 상대 국가/민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유아는 외모나 체형에 대한 편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뚱뚱한 체형과 못생긴 외모의 친구와는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영유아 대상 연구(소성숙, 2008; 양인실, 2003)는 이러한 영유아의 편견을 반영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종/얼굴/체형/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겉모습 등 외모와 관련된 다양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다양한 외모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영유아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지양하고, 2) 영유아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위주로 대화를 구성하고, 3) 서로의 외형적 공통점을



찾거나(예: 눈동자가 검정색이에요, 머리카락이 짧아요) 다른 점을 찾아(예: 키가 키요/작아요, 쌍꺼풀이 있어요/없어요) 외형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4) 교실 내에 다양한 연령, 체형, 인종, 국적의 사람들의 사진과 그림을 비치하여 영유아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외모를 접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별

영유아는 가정, 교육기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이수진, 2019), 이렇게 형성된 성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Derman-Sparks & A.B.C. Task Force, 1989). 영유아가 자주 접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분홍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리본 장식을 하고, 요리를 즐겨하는 여자 캐릭터를 보며 영유아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파란색 옷을 입고, 고장난 물건을 푹푹딱딱 고치는 남자 캐릭터를 보면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이렇듯 어른들이 설정해 놓은 성고정관념적인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집에 오는 대다수의 영유아 역시 이미 성고정관념을 형성한 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보다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성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교재, 교구, 놀잇감 등을 제시하여 다양한 성역할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다양한 성역할을 보여주는 책을 읽어주세요.
- 영유아와 함께 읽는 동화, 함께 부르는 노랫말에 성고정관념적인 내용이 있다면, 다함께 토론하고 내용을 바꿔 보세요.
- 영유아가 성고정관념적인 놀이를 선호한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놀이를 제안해 보세요.
- 영유아를 부를 때,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과 같은 표현보다 “반팔 입은 친구들, 딸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성별 구분 없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 영유아의 성고정관념적이지 않은 행동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세요.

성고정관념이 없는 영유아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

언어는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한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합니다(Derman-Sparks, Edwards & Goins, 2021). 다양한 언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양한 언어를 다양한 '외국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어도 단어, 표현, 억양이 다른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 역시 대한민국 내의 다양한 언어지요.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서 표준어를 쓰는 지역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하여 말투나 억양 때문에 난감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다양한 지역과 나라별로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더라면, '다름' 때문에 차별하거나 차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언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고 싶다면:

- 다양한 사투리를 들려주고, 사투리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각 지역의 다양한 사투리를 듣고 이의 특징을 찾아보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림책을 읽어줄 때 등장인물의 대화를 사투리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사투리를 쓰는 영유아는 친숙함과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표준어를 쓰는 영유아는 다양한 언어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 낮잠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노래를 들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소수자가 있는 반이라면, 영유아의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 네/아니오와 같은 표현을 배워 반 영유아와 함께 공유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업

어린이집에서 주로 다루는 직업은 소방관, 경찰, 의사, 간호사 등 영유아가 이미 알고 있거나 선호도가 높은 직업들입니다(박재옥, 2013; 차금안, 2012).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다양한 직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종류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업에 대해 성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공(예: 여자 조종사, 남자 발레리노, 여자 운동선수, 남자 패션디자이너 등)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영유아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우리의 일상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덕분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에게 함께 감사 편지 써 보기



- “만약 000가 없다면?” 특정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면서 직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 직업이 다양해서 좋은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 여러 직업을 소개하고 각 직업의 힘든 점과 즐거운 점을 이야기 하면서 모든 직업은 장단점이 있음을 알려주기
-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조리사, 기사, 마트 직원 등)을 소개하고 이들을 인터뷰하여 직업의 특징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

장애

영유아는 장애를 주로 신체적인 장애로 한정하여 이해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Derman-Sparks & The A.B.C. Task Force, 1989).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여겨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황신해, 2012). 따라서 영유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의 다양함을 인지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하나로 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색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 등,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각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책과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 반편견 인식이 증진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황신해, 2012)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 난독증이 있었던 고흐, 눈이 보이지 않던 세종대왕 등 위인전을 통해 장애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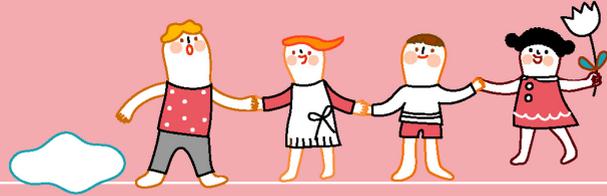
또한, 장애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15) 다양한 인물을 소개 할 때, 다양한 인종, 국적, 성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환경

환경은 사람 간에 다양한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별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 해보세요. 필리핀, 태국과 같이 더운 나라를 주제로, 이들이 입는 옷(예: 통풍이 잘 되는 옷), 먹는 음식(예: 음식이 상할까봐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편, 열대과일 등), 주거 형태(예: 얇은 벽, 큰 창문 등)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사진 자료를 통해 사실적인 그림을 제공하되, 현재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역사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러시아, 남극처럼 추운 나라를 주제로, 이들이 입는 옷(예: 털이 많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 귀마개 등), 먹는 음식(예: 음식으로 에너지 위해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 등), 주거 형태(예: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이글루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미치는 삶의 모습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 한국에서는 환경에 따라 어떤 음식과 주거 문화가 있었는지 소개함으로써(예: 섬 지역의 주거 형태 특징)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양함이 존재함을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교실이 달라졌어요

1.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2.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3.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교실





3장

우리 교실이 달라졌어요

영유아, 영유아의 가족, 그리고 교사인 나의 다문화감수성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보육의 모습도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띠 수 있습니다.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애정만 있다면 말이죠. 다문화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나의 교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¹⁶⁾

1.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	전환 과정	후
“우리 반에는 소수자 영유아가 없어서 다문화보육이 필요 없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보육이 특정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기관에 소수자 영유아가 있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며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줌 • 추후 입소할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됨
“식습관, 언어, 문화 등의 차이가 있는 다문화 영유아를 대하기가 어려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라는 단어에 영유아를 가둬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 •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게 됨 • 문화적 다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관점을 바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함(예: ‘다문화’ 영유아의 편식 문제→영유아의 편식 문제)

16) 본 교재에 실린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전	전환 과정	후
<p>“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유아가 언어 혼란이 올까봐 걱정이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영유아에게 모국어 사용을 지양하게 하는 것이 영유아의 문화를 박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됨 • 영유아가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됨 •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면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두 언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영유아의 가족에게도 가정에서 모국어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모국어 사용을 격려함 • 기관에서는 영유아가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영유아와 라포를 형성하고 그림 카드 사용, 모델링 등의 방법을 통해 언어 습득을 촉진함
<p>“언어적 소수자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을 바꿔 내가 낯선 나라의 이주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려고 함 • 교사-양육자 간의 ‘한국어’ 대화를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을 바꾸고 보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시도 • 소수자 가족의 언어적 장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도(예: 통역이 가능한 가족/대리인과 함께 이야기, 중요한 안내 사항에 별도 표시를 해두어 양육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 번역기를 통해 번역이 가능한 부분은 영유아 가족의 언어로 제공) •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소수자 가족을 또 다른 소수자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활용(언어적 지원 등)하여 소속감을 증진
<p>“언어적 소수자 영유아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답답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영유아에게도 모국어가 있음을 인지 • 이중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지연이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됨 •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언어 자극이 있어야 함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는 편한 언어(예: 모국어)로 충분한 언어 자극을 주도록 안내 • 기관에서는 반복되는 짧은 대화 위주로 구성된 동화책을 읽어주며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대화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유도 •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등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명사를 제공 • 반복적인 모델링을 통해 영유아가 단어, 표현을 익히도록 함



전	전환 과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가 모국어를 써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칭찬해주되 교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알려줌
<p>“연령이 낮은 영아를 대상으로 다문화보육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방법이 수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반에 있는 교실환경을 점검하고 재정비함(예: 다양한 피부색의 인형을 배치, 성고정관 넘적인 놀잇감 제거, 소수자 영유아의 언어로 된 책 구비 등) 노래를 틀어줄 때도 다양한 언어로 들려주려고 노력(예: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여러 언어로 들려줌; 낮잠 시간 자장가를 여러 나라의 자장가로 들려줌)

2.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다문화보육 전	다문화보육 실천 방법	다문화보육 후
<p>“특정 국적의 영유아가 교실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에게 관심과 사랑의 언어로 자주 표현해주고 표정, 말투, 몸짓 등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함 영유아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활동적인 신체 놀이를 실행함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소수자 영유아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눔 영유아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려되었던 행동에 대해 가정과 기관에서 일관적인 태도로 지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나 교사에게 보이던 공격적인 행동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교사에게 안기는 등 친밀한 행동이 늘어남 주말에도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

다문화보육 전	다문화보육 실천 방법	다문화보육 후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영아가 교실에서 자주 울고 교사인 저를 거부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의 모국어로 간단한 인사말, ‘사랑해’ 등의 언어 표현을 익혀 자주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이상 등원을 거부하지 않고 손인사, 허리인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 교사에게 안기는 등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가 언어 표현을 하지 않아 언어 지연이 의심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에게 그림 카드를 써서 대화를 촉진함 영유아의 요구 사항에 대해(예: 물)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반복해줌(예: 물 먹고 싶어요? 물 줄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전에는 흘려 들던 교사의 말을 이전보다 집중해서 듣기 시작 궁금한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어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언어에 대한 흥미가 생김)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의 한국어 발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 영유아에게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의 언어적 상황(이중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이중언어를 쓰는 것의 장점에 대해 설명함 또래 영유아에게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의 모국어를 소개하고 숫자, 인사말 등을 함께 익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영유아가 예전과 다르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임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 또래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짐 또래 영유아도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임
“피부색이 다른 영유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인종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 다양한 거주 형태, 문화 등에 대해 사진을 제시하며 이야기 함 다문화 교구(예: 세계 인형, 지구본 등)를 교실에 배치하여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양성에 대해 익히도록 촉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다문화 교구를 통해 역할놀이 하는 모습을 발견(예: 다양한 피부색의 인형에게 “나는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야. 우리 같이 놀까?” “우리는 모두 친구야” 등의 표현을 관찰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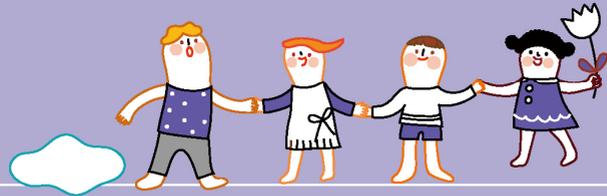


다문화보육 전	다문화보육 실천 방법	다문화보육 후
“소수자 영유아가 편식을 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가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을 파악하려고 함 • 영유아가 좋아하는 반찬은 좀 더 제공하고 거부하는 반찬은 소량만 제공하면서 천천히 소개하려고 함 • 식사 시간 전 영유아에게 오늘의 반찬에 대해 미리 소개함. • 또래 영유아에게 소수자 영유아가 가정에서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해 알려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거부하다가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먹은 후 교사에게 자랑을 함 •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서 영유아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김

3.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교실

앞의 사례들처럼,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보육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아래 표에 적어 봅시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실천할 내용까지, 변화가 시작될 우리 반을 기대해 봅시다.

다문화보육 실천 방법	
교실 환경 구성하기	(예: 소수자 영유아가 자주 읽는 책 갖다 놓기)
영유아와 올바르게 대화하기	(예: 고정관념적인 나의 언어 점검하기)
양육자와 소통하기	(예: 가정통신문 내용 중 중요 사항은 번역하여 전달하기)
수업 활동 구상하기	(예: 영유아의 가족을 초대하여 가정에서 자주 먹는 음식 함께 요리하기)



다양한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

다양한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의 <다양한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¹⁷⁾를 보면서 현재 나의 교실에 영유아가 무의식중에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형성할 만한 교구, 놀잇감, 책 등은 없는지, 혹은 평소 대중매체나 상업적인 놀잇감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환경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공간 구성

- 교실 및 어린이집 공간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교실 및 어린이집 공간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예: 조리실, 화장실, 유희실, 도서 공간 등)
 - 책상, 놀이 공간 등이 영유아의 다양한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는가?
 - 놀이 공간이 모든 영유아의 다양한 흥미를 자극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예: 역할놀이 영역이 지나치게 고정관념적인 여자 영유아의 흥미 위주(분홍색, 소꿉놀이, 화장대 등)로 구성된 것은 아닌가?)
- 교실 및 어린이집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내가 사용하는 색이 영유아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여자-분홍, 남자-파랑)
 - 내가 사용하는 색이 지나치게 '부드러움'을 강조하거나 특정 색의 사용을 지양하지는 않는가? (예: 원색보다 파스텔톤 선호, 검정색, 남색, 밤색 등 어두운 색 사용 지양 등)

17) 김혜영, 이수진, 2021, pp. 34~37).

- 교실 및 어린이집이 다양한 이미지(그림 및 사진)를 포함하고 있는가?
 - 내가 사용하는 그림, 사진이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타민족 묘사 시 전 통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만을 사용)
 - 내가 사용하는 그림, 사진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동성부모 가정, 반려견이 있는 가정 등), 인종, 직업 등)
- 교실 및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모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 영유아와 보호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가?
 - 영유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가?
 - 영유아의 활동사진이 전시되어 있는가?

교재, 교구, 놀잇감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영유아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는가?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의 종류가 다양한가?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흥미 및 발달영역을 자극하는가?
(예: 소·대근육 사용 촉진)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다양한 인종, 민족, 직업, 가족 형태, 나이, 장애, 옷차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한 인형, 교재 등)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요리하는 아빠, 경찰 엄마)
 - 교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도서

- 책의 내용이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영유아에게 적합한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었는가?
 - 영유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그림체와 색이 쓰였는가?
 - 책의 줄거리가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을 부추기지는 않는가? (예: '좋아하면 괴롭혀도 된다' 혹은 '사랑하면 참아야 한다' 등과 같은 그릇된 메시지 전달)
- 책의 내용이 다양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 등장인물이 인종, 민족, 문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미운아기오리> 처럼 '못생긴' 역할은 검정색, '예쁜' 역할은 흰색으로 묘사 등)
 - 등장인물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 책의 줄거리가 인종, 민족, 문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사회적 소수자가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만 묘사)
- 책의 줄거리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영유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가?

참고문헌

-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1366&cid=41990&categoryId=41990>
- 교육부(2020a). 놀이연계자료1- 우리는 놀면서 배워요.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b).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및 놀이연계자료 활용 안내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 김지혜(2017).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 *법과사회*, 55, 1-29.
- 김진희(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 사회*, 15(2), 127-153.
- 김혜영, 이수진(2021). *모두를 나답게 키우는 어린이집 속 다문화*. 한국보육진흥원.
- 박재옥(2013). 통합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의 다문화 수용성 및 창의적 놀이 행동.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선 (2014). *편견*. 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21&cid=41991&categoryId=41991>
- 백인경(201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인경, 김낙홍 (201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 연구*, 37(4), 501-531.
- 선입견 (2021년 5월 27일).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d91f52b4934450b997995ad55843ef4>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소성숙(2008). 다문화 미술활동이 유아의 편견과 자아개념,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인실(2003). 그림책이 유아의 편견 해소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영동군청. (n.d.). 다문화가정이란. 영동군청 홈페이지.
<https://yd21.go.kr/kr/html/sub05/0501040101.html>
- 이수진(2019)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연선(2013). 유아다문화교육정책 및 실제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저책, 교육청,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6), 181-204.
- 이연선(2014). 유아교사와 희망유아교육사의 다문화적 경험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8(2), 247-267.
- 이연선(2020). 부모도 함께 즐기는 진짜 놀이 방법- 내 아이의 배움 따라가기. 부모교육특강. '학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콘서트'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특강. 2020년 10월 22일.
- 이연선, 견주연, 김지연(2014).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은유(methaphor)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571-589.
- 이연선, 윤갑정, 견주연(2012). 유아다문화교육의 의미 탐색 및 실제적 제언: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3), 117-140.
- 이영미, 임민정, 윤재희, 이승하 (2021). *영유아 사회교육*. 공동체.
- 이찬승, 허경철, 조난심, 이연선 외(2013).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중국의 소수민족 (2017년 12월 6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98162&cid=43667&categoryId=43667>
- 차금안(2012). *동화를 활용한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편해문(2007).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이 온다*. 사진집.
- 편해문(2009). *소꿉*. 사진집.
- 황신애(2012). 위인그림책 읽기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반편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illig, M.,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7-51.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Derman-Sparks, L., Edwards, J. O., & Goins, C. M. (2021).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 ourselves* (2nd ed.).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dokdoisours.blogspot.com

<http://blog.naver.com/sinmakg/8688>

<http://cafe.naver.com/primehanshin/4080>

<http://cafe.naver.com/primehanshin/4195>

<http://www.hancinema.net>

https://www.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05&manage_idx=31

Kang, S. K. (2018).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2018 program book.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 *A study on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nd cultural adop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Focused on Russian-speaking migrants*(pp.52-52). www.worldhumanitiesforum.com 서울: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한국연구재단

Kant, I. (1959). *Foundation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Lewis White Beck. Indianapolis: Bobbs-Merrill.

Katz, P. A. (1981).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deas about country and nati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3(1), 47-60.

Kim, M. (2018).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2018 program book. *A human image in modern society and the life of coexistence*(pp.246-247).



www.worldhumanitiesforum.com 서울: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한국연구재단

Philip, S. (2018). Cultural mapping: connecting youth with heritage(pp.260-261).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2018 program book.

www.worldhumanitiesforum.com 서울: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한국연구재단

Porter, J. D. R. (1971). *Black child, White child: The development of racial attitud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ozzon, R. (2018).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2018 program book.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 Innovation for inclusion and reflection* (pp.169-171). www.worldhumanitiesforum.com 서울: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한국연구재단

Ramsey, P. G. (2004).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Teachers College Press.

Stangor, C., & Langue, J. (1994). Mental representations of social groups: Advances in understanding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pp. 357-416). San Diego: Academic Press.

York, S. (2016). *Roots and wings: Affirming culture and preventing bias in early childhood* (3rd ed.). Redleaf Press.



강사진 및 집필진

- 이연선 교수(부산대학교)
- 김혜영 교수(부산대학교)

2022년도 다문화가정 아동 담당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2022년 11월 인쇄
2022년 11월 발행

발행인 | 한국보육진흥원장
발행처 | 한국보육진흥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화 | 02) 6901-0100
홈페이지 | <https://www.kcpi.or.kr>
인쇄처 | 사회적기업 디자인마이러브 02-3436-6033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